

나주 SRF 기본합의 최종합의 '산 넘어 산'

민관거버넌스 합의서 체결 내년 1월 시험가동할 듯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선 나주 고흥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발전소 시험가동,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면서다.

〈관련기사 3면〉

올 1월 SRF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곡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거버넌스가 구성된 지 9개월 만이다. 지역민들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합의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SRF 발전소 폐쇄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교체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과 부담 주체, 지역민들의 요금 인상 수준 등을 1년 안에 부속합의서에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천 리 길을 향한 첫걸음'을 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기본합의서에는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보전 방안 ▲기타사항 등이 담겨 있다.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시험 가동을 2개월간 진행한 뒤 30일간 분가동을 실시기로 했고,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기관·시기·시점·항목 등을 결정하고 최종보고서를 가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주민 수용성 조사는 거버넌스가 주관해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고 환경영향조사 결과 제시와 함께 ▲

SRF 사용방식 ▲조건부 LNG 사용방식 중 하나를 선택토록 했다.

수용성 조사 범위는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반경 5km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에 걸친 법정동·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손실보전방안은 주민 수용성 조사 전까지 마련토록 했고 세부 내용은 부속합의서에 담도록 했다.

거버넌스는 또 기본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속합의서 작성이 이뤄지지 못하면 기본합의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했다.

거버넌스의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면서 한곡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의 연료사용 승인허가와 발전소 가동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거버넌스 관계자는 "이해 당사 간들이 여러차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논의하면서 새로운 모델과 합의안을 만들어냈는데 의미가 있다"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면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배가 첫 출항한 것으로, 목적지까지 여러 어려움과 바람이 있더라도 기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열병합발전소는 30만㎡ 이상 택지가 조성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의무설치대상인 점을 감안해 소각장 대신 2700억원이 투입된 혁신도시에 지어졌다.

혁신도시 인근 사·군인 나주·화순, 순천·구례, 목포·신안 등 3개 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쓰레기와 폐비닐 등을 압축, 생산된 고흥연료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를 구축하는 자는 취지였다.

예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나주 지역민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여태껏 멈춰선 상태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온라인 모집 '불법·유령 당원' 조사

당비 대납·주소지 변경 등록 등 중앙당 차원서 전수조사 과열경쟁 광주 광산 갑·을지역 당원 전체 조사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해 당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불·탈법 당원 모집 논란을 빚어온 광주 광산갑·을 지역구의 경선 판세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당원의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후보 별로 경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 6월 21일자 참조〉

특히 이번 민주당 중앙당의 전수조사와 함께 불·탈법 논란을 빚어온 광산 갑·을의 경우에는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강도 높은 전체 당원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민주당 중앙당의 당원 전수조사가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당원을 우선 조사하기 때문에 광주시당 차원의 자체 조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제21대 총선 권역당원 선거인단에 대한 중앙당 전수조사가 시작했다. 대상은 불법 모집이 의심이 되는 전국 기준 1차 4만1000명이며,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각 사·도당에 당원의 임의 주소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지침도 함께 내려보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당원 모집 과정에서 과열양상을 보였고 불법 모집 의혹도 제기돼 1차 전수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한 주소지에 4명 이상의 당원이 가입돼 있는 경우가 1차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앞

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윤호중 사무총장과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장이 참석하는 비공개회의를 열어 권역당원의 선거권과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원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당비 대납과 주소지 변경 등록 등 불법 당원 모집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까지 입당해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역당원의 투표 결과와 일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해 내년 총선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권역당원의 표심이 사실상 경선 결과를 판가름한다는 점에서 지난 7월 말까지 권역당원 모집 경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 권역당원이 90만 명이 넘는 과정에서 당원 모집과 관련해 편법도 극성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광산지역에서 접수된 당원 중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당원들의 주소가 임의로 변경돼 등록되는가 하면 동일 주소에 7~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된 사례 등도 상당했다. 또 상당수의 당원은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유령 신장자'였다.

무엇보다도 온라인 당원 불법 모집 논란을 빚은 광산갑·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무더기로 접수됐던 일부 입당원서의 필체가 똑같아 광주시당이 전산 입력 과정에서 이를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정치인은 "중앙당 전수조사 과정에서 불탈법 사례가 드러나면 광주시당 차원에서 문제가 된 광산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중앙당 차원에서 강도 높은 당원 자격 조사가 나선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랗게 물든 장성의 가을 맑은 날씨를 보인 26일, 장성 황룡강변에 황하코스모스가 만개해 가을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노란꽃을 주제로 하는 '2019 노란꽃잔치'가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서울·연세·고려대 등 13개대 학종 등 입시실태조사

대입비리신고센터 개설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입학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고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생을 많이 뽑는 대학 13곳을 대상

으로 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 실태를 조사한다. 정부는 또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교육실태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곳이다. 이들 중 3곳은 종합

감사와 함께 실태 조사를 한다. 조사는 교육부, 대학·교육청 담당자, 외

부 전문가,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이 한다. 10월말까지 입시자료 조사·분석을 마치고 바로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이날부터 홈페이지에 '대학 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 비리 신고를 접수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피부균형을 리셋해 스스로 빛나는 피부로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노화, 시간이 아닌 피부 속 불균형의 문제
 자음단™을 담은 윤조에센스가 흔들리는 피부균형을 리셋해
 5가지 젊음의 지표*를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이제, 젊음의 밸런스로 다시 힘 있게 깨어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자생력, 생기, 영양, 투명, 탄력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윤조에센스

Sulwhasoo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